

고물가에 '無지출 챌린지' 나선 MZ세대들

하루 두 끼 7000원...치킨·영화표는 '중고나라'

전남대 학생 임은교(25)씨는 매일 7000원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마저도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해결해야 할 식비일 뿐이다. 임씨는 수소문 끝에 한 끼를 3500원에 파는 고시식당을 찾았고 곧장 단골 식당으로 삼았다.

교사 임은교시를 준비 중인 그는 식사 후 커피도 독서실에서 마련데 있는 커피로 해결한다.

한창 맛을 부릴 나이지만 미용실도 가지 않고, 매달 꾸준하게 사던 옷조차 사지 않은지 몇 달이 됐다. 다만 영화 감상과 밤에 가끔 즐기던 치킨 간식은 끊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나 앱 등을 심분 활용, 극장표나 기프트콘을 구매해 몇천원이라도 아끼고 있다고 한다.

임씨는 "최근 무제한 데이터 요금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도 기본요금 수준인 3만원 이하 요금제로 변경하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와이파이 존을 찾아 사용한다"며 "궁상맞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의 시선은 신경 안 쓴다.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 세대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임용고시 준비' 전남대생 임은교씨 '자린고비' 지출일지 보니 커피는 독서실...미용실 안 가고 몇 달째 옷 안 사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 대신 3만원 이하로 변경 방학 중 학생식당 봄벼 "가격을 보면 절로 맛있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이른바 MZ세대에서 지출을 극도로 줄이며 생활하는 '무(無)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살인적 고물가 속에 부모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타서 쓰는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퍼지는 '슬픈 유행'이다.

본래 무지출 챌린지는 온종일 한 폰도 안 쓰면서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비 풍속도를 말하지만, MZ세대들은 그날 그날 자신이 아낀 비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방학인데도 광주지역 대학교 학생식당에 학생들이 줄 서는 모습도 이런 세대를 반영한다.

요즘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식당에는 점심시간 4500원짜리 메뉴를 찾아 줄 서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폰이라도 아끼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식당을 찾는 학생부터 '값싸고 맛도 좋다'며 일부러 찾는 인근 주민까지 고객은 다양하다.

전남대 학생식당에서 만난 송형근(25)씨는 "학교 앞에서 혼자 원룸에 살고 있지만, 식비 아끼려고 최근 자주 학생식당을 이용하고 있

다"며 "맛은 중요하지 않고 가격을 보면 저절로 입맛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조선대 대학원생 문성준씨는 "조선대 학생식당 정도의 맛과 가격이면 완전히 저렴한 편"이라며 "돼지고기 볶음 같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자율배식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좋아 자주 이용하고 주변에서도 자주 찾는다"고 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늘어나는 것도 맥락은 같다. '헬스장 이용권', '미용실 정액권' 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의 상품권까지도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중고 거래되고 있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껴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갑을 닫고 지출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학원생 여제자 성추행 혐의 조선대 공대 교수 검찰 송치

대학원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조선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제자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성폭력 처벌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조선대 공대 교수 A씨를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학교와 술집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제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연구소와 술집 등으로 불러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꺼안거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제자 B씨는 A씨에 대한 범행을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간병 하랬더니 1억 도둑질

중증 환자의 은행 계좌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간병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광주광산경찰은 재택 간병인 A씨를 컴퓨터 등 사용자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중증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계좌이체를 해 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A씨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 방법 등을 알아낸 뒤 수차례에 걸쳐 돈을 무단 이체했다고 광산구 지구대에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주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계좌이체 정황을 확인결과 이체 내역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피해 기간과 피해 액수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흙친 통장으로 5000만원 끌껴

빈집에 들어가 흙친 통장으로 수천만원을 인출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여수경찰은 빈집에 들어가 통장을 훔쳐 590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에 여수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쳐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인들이 주로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A씨는 흙친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로 은행 자동인출기에서 100여만원씩 46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인출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400억대 항만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포스코 승소

"정당 금액 산정 불가로 전체 취소"

법원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스코홀딩스(광양 제철소 지주사) 측에 내린 400억원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처분 행위를 취소했다. 사용료 항목 일부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근거 없는' 사용료 부과에 해당하고, 전용(專用) 사용료가 부과된 항목 중에서도 전용 범위를 넘어선 부과행위가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 3년 치 사용료 가운데 원고(포스코) 측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사용료를 부과할지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형)는 지난 21일 포스코홀딩스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항만공사)가 2021년 5월 14일자로 내린 항만시설 사용료 261억원 부과처분(2019, 2020년치)과 2021년 12월 30일자로 내린

131억원의 부과처분(2021년치)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부과한 항만 내 도로·건물·야적장·공작물 사용료 등 항만 사용료 가운데 일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근거 없는' 사용료 부과에 해당하고, 전용사용료 매긴 항목에 대해서도 전용 면적을 제대로 산정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만시설 중 원고가 전용 사용하고 있는 창고와 야적장 등 일부는 전용사용료 부과 가능하지만,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용사용 중인 면적이 얼마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 행위 전체를 취소한 배경을 밝혔다.

이율러 재판부는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초과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버려진 신발에 핀 꽃 발로 화분을 제작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6일 열린 불법투기 상습지역 개선을 위한 업사이클링 작업에 참가한 365민생행복지원단원들이 수집한 폐신발을 재활용해 화분을 제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도심 패싸움' 광주 조폭 40명 무더기 검거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심에서 다툼을 벌이고 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12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술집에서 주먹 다툼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보복을 위해 상대 조직원들을 추가로 폭행하는가 하면 무더기로

모여 패싸움을 준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및 입건 수사를 받는 이들 대부분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2개 폭력조직의 20대 남성 조직원"이라며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을 저지른 데다 계속되는 다툼 과정에서 시민 피해 등을 우려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